



‘완도 탱크’ 만리장성 넘는다

아시아 원정에 나섰다 첫 경기에서 세계 토폴랭커의 자존심을 구긴 ‘탱크’ 최경주(37·나이키골프)가 중국에서 명예회복에 나선다.

최경주는 8일부터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서산인터내셔널골프장(파72·7천199야드)에서 나흘간 열린 유럽프로골프투어 겸 아시아프로골프투어 HSBC챔피언스에 출전한다.

지난 4일 끝난 싱가포르오픈에서 사흘 내내 오버파 스코어를 내며 공동 14위에 그쳤던 최경주는 세계랭킹도 8위에서 11위로 떨어져 이래저래 명예회복이 절실한 처지.

HSBC챔피언스에 3년 연속 출전하는 최경주는 코스도 이제 익숙해져 2003년 린데 저먼 마스터스 이후 4년만의 유럽투어 정상 정복으로 아시아 최고 골퍼의 위상을 입증하겠다는 생각이다.

최경주는 2005년 공동 12위, 그리고 작년에는 공동 9위를 차지했다.

한국프로골프 상금왕과 신인왕을 석권하고 세계무대 진출 전초전으로 아시아 원정에 최

애플 프로골프 HSBC 챔피언스 8일부터 중국서 개막 최경주 “싱가포르 오픈 부진 씻고 애플 최고 입증” 각오

경주와 동반한 ‘슈퍼투키’ 김경태(21·신한은행)도 구겨질 대로 구겨진 ‘한국 상금왕’의 체면을 되찾겠다는 다짐이다.

싱가포르오픈에서 컷조차 통과하지 못한 김경태는 중국에서 열렸던 삼능 애플시티오픈 우승이라는 달콤한 추억을 안고 상하이에 발을 디뎠다.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에 이어 세계랭킹 2위에 올라 있는 필 미켈슨(미국) 역시 싱가포르오픈에서 공동 23위로 밀린 망신을 풀어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다.

최경주, 김경태, 미켈슨 말고도 이번 대회에서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은 선수는 바로 작년 챔피언 양용은(35·테일러메이드)이다.

지난해 우즈와 레티프 구센(남아공), 짐 퓨릭(미국) 등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을 모조리 제치고 이 대회에서 우승컵을 거머쥔 양용은은 하루 아침에 ‘월드스타’로 떠올랐지만 이후

1년 동안 추락을 거듭했다.

미국과 유럽을 오가며 뛰었지만 거듭되는 컷 탈락에 한때 30위권까지 올라갔던 세계랭킹은 93위까지 하락했다.

양용은은 제2의 골프 인생을 열어줘 ‘고향’이나 다름없는 상하이 서산인터내셔널골프장에서 다시 한번 도약의 계기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출사표를 냈다.

이와 함께 싱가포르오픈에서 컷오프되면서 유럽투어 상금왕 자리도 놓쳐 망신살이 뻗어나니 엘스(남아공)도 이 대회에 나서서 각오가 남다르다.

그러나 이들 다섯 명의 ‘한풀이’와 ‘명예회복’은 결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총상금이 500만 달러에 이르는 특급 대회인 HSBC챔피언스는 특급 선수들이 대거 출전해 치열한 우승 경쟁이 예상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LPGA 최고수 가리자”

내일 미첼컴퍼니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 개막

최근 4년간 대회 우승자만 참가하는 ‘왕중왕전’

지난 2002년에 이어 최악의 우승 흥작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코리안 시스터스’가 시즌 막바지 우승컵 사냥에 나선다.

한국 선수 12명은 8일(이하 한국시간) 오후부터 나흘 동안 미국 앨라배마주 모빌의 로버트 트랜트 존스 골프장(파72·6천253야드)에서 열리는 미첼컴퍼니LPGA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에 출전한다.

이 대회를 마치면 LPGA투어는 32명만 추려 ‘서바이벌 게임’ 방식으로 우승 상금 100만달러를 나누는 ADT챔피언십을 끝으로 시즌을 폐막한다.

미첼컴퍼니 LPGA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는 최근 4년 동안 투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챔피언들만 나올 수 있다. 다른 대회와 달리 출전 선수의 수준이 높다는 뜻이다.

올해 고차 4승을 수확하는데 그쳤던 하반기 들어 힘이 부치는 기색이 역력한 ‘코리안 시스터스’가 ‘왕중왕전’이나 다를

없는 이 대회에서 우승컵을 거머들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출전 선수는 38명 뿐이지만 강력한 우승 후보가 한 두명이 아니다. 시즌 7승을 쓸어 담으며 최강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새로운 골프여제’ 로레나 오초아(멕시코)가 가장 부담스럽다.

작년 이 대회 챔피언으로 타이틀 방어에 나서서 오초아는 삼성월드챔피언십 우승 이후 2개 대회를 쉬어 그렇지 않아도 강인한 체력에 여유가 더해졌다.

오초아의 강력한 대항마로 등장한 수잔 페테르센(노르웨이)도 넘기 힘든 벽이다. 지난 달 4개 대회에서 3승을 챙겨 오초아의 독주에 급제동을 건 페테르센도 1개 대회를 건너뛰며 ‘왕중왕전’에 대비했다.

플라 크리머, 모건 프레스, 나탈리 결비스 등 ‘아메리칸 샴쌍사’의 패기와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 줄리 잉스터(미국) 등의 노련미도 한국 선수들이 넘어야 할 장애물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김연아 “감이 좋아요”

피겨스케이팅 그랑프리 대회 참가



“얼음 느낌이 좋아요.”

‘피겨 여왕’ 김연아(17·군포 수리고·사진)가 2007~2008 시즌 첫 무대인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시니어 그랑프리 시리즈 3차 대회(8~11일·중국 하얼빈)를 앞두고 6일 현지 적응 훈련을 시작했다.

김연아의 매니지먼트사 IB스포츠는 “대회가 열릴 하얼빈 국제컨퍼런스 스포츠센터에서 두 시간쯤 빙질 적응 훈련을 했다”며 “빙상장 환경에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김연아는 “빙질은 물론 빙상장 온도 역시 캐나다, 미국처럼 연기하기에 딱 좋다”며 “추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 다행”이라고 했다.

구동희 IB스포츠 이사는 “컨디션이 매우 좋은 상태”라며 “첫 훈련을 본 브라이언 오서 코치도 만족했다”고 전했다. 김연아는 8일 쇼트 프로그램에 출전하고, 10일에는 프리스케이팅 연기를 한다. /최재호기자 lion@



멜버른컵 경마 “말 달리자”

6일 호주 멜버른 플레밍턴 경마장에서 열린 ‘멜버른 컵’ 경마대회에서 출전 선수들이 말과 함께 결승선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경남 “다승왕 잡겠다”

내일 KPGA 하나투어챔피언십 참가

한국프로골프(KPGA) 강경남(24·삼화저축은행)이 시즌 상금왕은 내렸지만 다승왕만큼은 놓치지 않겠다며 버리고 있다.

지난 시즌 상금왕 강경남은 올해 2승을 올리며 3억4천700만원을 받았지만 3승을 기록하며 4억4천200만원을 받은 김경태(21·신한은행)의 돌풍에 밀렸다.

김경태가 국내 투어에 출전하지 않고 아시아 투어에 참가하면서 강경남은 10월 말 열린 금강산안터 NH 농협오픈에서 상금랭킹 1위를 탈환할 기회를 잡았다. 하지만 강경남은 이 대회에서 공동 15위에 그치면서 역전 기회를 놓쳐 김경태에게 상금

왕 타이틀을 내주고 말았다.

이제 강경남이 노릴 만한 타이틀은 다승왕. 강경남이 8일부터 나흘간 경남 진해 용원골프장(파72·6천168m)에서 열린 SBS 코리안투어 하나투어챔피언십(총상금 3억원)에서 우승하면 ‘공룡’이라는 꼬리표가 붙지만 김경태와 함께 시즌 3승으로 다승왕을 차지하게 된다.

김경태가 마지막 정규대회인 하나투어 챔피언십에도 불참하면서 평균타수 2위(71.241타), 그린 적중률 4위(66.975%), 평균 퍼트 수 4위(1.777타)를 달리고 있는 강경남의 우승 가능성은 높다.

하지만 하나투어챔피언십은 상금랭킹 40위 선수만을 초청, 컷오프 없이 치르는 대회인 만큼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7일(수)

- ▲올림픽 야구 대표팀 평가전(올림픽 대표팀 : 상비군)(12 : 30·MBC ESPN)
- ▲2007 대학배구 최강전(한양대 : 경희대)(13 : 50·SBS스포츠)
- ▲2007 배구월드컵(여자부) 2라운드(대한민국 : 태국)(12 : 30) (일본 : 이탈리아)(18 : 00·KBS N SPORTS)
- ▲2007 KBS N 전국주계 1, 2학년 대학 축구 개막전(15 : 00·KBS N SPORTS)
- ▲여자프로농구(삼성 : 신세계)(16 : 50·SBS스포츠)
- ▲프로농구(KCC : LG)(18 : 50·SBS스포츠) (모비스 : KTF)(18 : 50·Xports) 8일(목)
- ▲UEFA 챔피언스리그 32강 4차전(맨체스터 유나이티드 : 디나모키프레) (04 : 30·MBC ESPN)

중고자동차 전차종 매입·판매

신차매입부담해, 낡아도매입가능, 판매안락

신차매입부담해: 신차매입 시 부담되는 세금, 보험, 등록금 등을 본사가 부담해 드립니다.

낡아도매입가능: 10년~20년 된 차량도 매입 가능합니다.

판매안락: 신차매입 시 부담되는 세금, 보험, 등록금 등을 본사가 부담해 드립니다.

(주)나리자동차무역상사 | 유|홍길동자동차매입상사 | 대표전화 061-451-8908, 010-8427-9997

2007 레드옥스 장고형 대방출

종류는 90~60대 방출

TEL: 02-302-4458 | 111-367-1183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합격률 1위

개강 11월 12일

특목 시험에는 유일하게 지원 "기초이론강좌" 제공, 교수진 명강사 11명, 세션 함께 시스템 II

특목 시험 대비 - 고용보급, 현금과정, 합격률 90% 보장, "현재 접수중"

광주고시학원 | TEL: 337-9999 | FAX: 337-9999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2008년 제1회 공인중개사 시험대회는 자금부담 전문학원에서 단기간으로 준비하십시오.

기초과정 → 7월이론 → 심화이론 → 핵심요약 및 문제풀이 → 출제시각 → 합격

개강 11월 12일 | 연회원특혜 | 50명 선착순 | 국비무료

공인중개사학원 | TEL: 361-8111 | FAX: 361-8111

공인중개사전문학원 | TEL: 529-8111 | FAX: 529-8111